

자료제공 : 2024. 6. 19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

감사담당관	김현중	02-2133-3010
적극행정팀장	김유용	02-2133-3185
담당사무관	문현우	02-2133-3187
관련 누리집 (메뉴)		-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서울시 감사위 북(北) 오물풍선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 방안 길 터줘

- 6. 19.(수) '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방안'을 '적극행정 사례'에 해당하여 인용 의결
-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부여

-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6월 19일(수) 제12차 감사위원회회의에서 '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' 안건을 '적극행정 사례'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 - 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따른 것이다.
 - 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, 감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이다.
 - 감사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불명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았다.

- 사전컨설팅에서 인용되어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.

-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“일선 공무원들이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문화와 시민들로부터의 신뢰가 형성된다”고 하면서, “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·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